

벤츠 럭셔리 준대형 SUV '더 뉴 GLE' 온다

전 세계 200만대 이상 판매...4세대 부분변경 모델 5종 라인업 공개 온·오프로드 첨단 주행 보조시스템·360도 카메라 주차 패키지 등 탑재

전 세계적으로 200만대 이상 팔린 메르세데스-벤츠의 GLE의 4세대 부분변경 모델들이 국내 공식 상륙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럭셔리 준대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GLE의 4세대 부분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사진)' 5종의 모델 라인업을 공개하고 공식 판매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1997년 최초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2백만 대 이상 판매된 GLE는 1997년 M-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후 2015년 지금의 GLE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국내에서도 2016년 첫 출시 이래 2만대 이상 판매됐다.

더 뉴 GLE는 총 5개 모델로 구성됐다. SUV 모델은 300d 4매틱(MATIC), 450 4매틱과 고성능 모델 AMG 53 4매틱+ 등 3종이다. SUV 쿠페 모델은 450d 4매틱 쿠페와 AMG 53 4매틱+ 쿠페 등 2종이다.

벤츠는 이달부터 300d 4매틱, 450 4매틱, 450d 4매틱 쿠페 등 3종의 더 뉴 GLE 모델 인도를 시작, 나머지 2개의 고성능 모델은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추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400e 4매틱 쿠페 모델도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는 파워트레인과 안전·편의 사양 등 모든 면에서 향상된 상품성을 갖췄다. 더 뉴 GLE와 GLE 쿠페 내연기관 모델 및 고성능 모델 전 라인업에는 전기 구동화 엔진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돼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 또 2세대 통합 스타터 제너

레이터(ISG)가 함께 적용돼 최대 15kW, 200Nm의 추가적인 전기 출력과 토크를 지원한다.

SUV 모델인 GLE 300d매틱과 450 4매틱에는 각각 4기통 디젤 엔진(OM654M), 6기통 가솔린 엔진(M256M)이 탑재됐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결합돼 더 300d 4매틱은 최대 269마력, 550Nm의 토크를 발휘한다. 450 4매틱은 최대 381마력, 500Nm의 토크를 발휘한다.

SUV 쿠페 모델인 GLE 450d 4매틱 쿠페에는 이전 모델 대비 출력 및 토크가 각각 37마력, 50Nm 향상된 6기통 디젤 엔진(OM656M)이 탑재됐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도움으로 최대 367마력, 750Nm의 토크를 발휘, 가속력도 이전 모델 대비 0.1초 향상돼 5.6초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도달할 수 있다. 최고 속도도 기존 240km/h에서 250km/h로 빨라졌다.

고성능 모델인 더 뉴 AMG GLE 53 4매틱+와 AMG GLE 53 4매틱+ 쿠페에는 3.0ℓ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M256M)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함께 탑재됐다. 최고 출력 435마력, 560N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 제로백까지 기존 5.3초에서 5초로 빨라졌고, 250km/h의 최고 속도를 자랑한다.

GLE 모든 라인업에는 온·오프로드 모두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을 돕는 첨단 주행 보조시스템과 최신 편의사양이 탑재됐다.

대표적으로 ▲오프로드 주행 모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플러스 ▲360도 카메라가 포함된 주차 패키지 ▲오프로드 주행 모드에서 360도카메



라와 연계해 전방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는 투명 보닛 등이 탑재됐다. 실내에는 ▲에너지이징 패키지 ▲에어 밸런스 패키지 열선 스티어링 휠과 열선 윈드스크린 워셔 시

스템을 포함하는 윈터 패키지 ▲2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이 탑재됐다. 외관 디자인은 프론트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헤드-리어램프 등에 섬세한 변화를 줘 멋스러움을 강

화했다. 특히 실내에는 최신행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을 비롯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에 적용된 크롬 송풍구 등도 적용됐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다음달 신입사원 공채

연구개발 등 6개 분야 26개 직무 14일까지 지원서 접수

현대차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9월 신입사원 상시채용 지원서를 접수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총 6개 분야 26개 직무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외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 분야별 자격요건과 수행 직무 등의 세부사항 확인을 비롯해 지원서 접수는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https://talent.hyundai.com>)에서 할 수 있다.

현대차는 채용 기간 동안 현직자와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잡페어(Job Fair)와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 개최해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가 2017년 이후 6년 만에 재개하는 잡페어는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쉼(Scene)에서 열린다.

잡페어는 팝업스토어(Pop-up Store)의 형태로 ▲현대차 구성원의 일과 성장, 기업문화를 소개하는 팝업 전시 ▲현직자와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팝업 전시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관람 가능하며 '프로젝트 코드'를 주제로 하나의 신차를 개발해 완성하기까지 그 뒤에 담긴 현대차 구성원의 노력과 성장의 발자취를 소개할 예정

이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이 현대차의 다양한 직무와 밸류체인(Value Chain)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입사 후 성장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현대차의 계획이다.

현직자와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직자와 직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리버스 인터뷰' ▲현대차 구성원의 성장 스토리를 듣는 '팀 현대차 토크' 등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시공간 제약없이 현직자와 소통이 가능한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도 9월 5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는 ▲현직자가 채용 직무를 발표하는 '채용 발표회' ▲현직자와 지원자가 직무에 대해 소통하는 '직무 상담 공간' ▲인사담당자와 채용 상담 또는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HR 상담 공간' ▲현대차 채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채용 정보관' 등의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잡페어와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는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9월 3일까지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예측 가능한 상시채용' 원칙에 따라 매 분기별(3, 6, 9, 12월) 1일마다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제네시스, 美 JD파워 첨단기술 만족도 1위

2023년형 모델 편의성·자동화 기술 등...현대차 2위

제네시스와 현대차가 J.D.파워 선정 신차 첨단 기술 만족도 조사에서 상위권을 석권했다.

28일 현대차에 따르면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J.D.파워는 최근 '2023 미국 기술 경험 지수 조사'를 발표, 제네시스(656점)와 현대차(647점)가 캐딜락(533점), 렉서스(533점), BMW(528점) 등 완성차 브랜드를 넘어 전체 브랜드 순위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TXI 조사는 2023년형 신형 모델을 구입하고 90일 이상 소유한 8만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했다.

이 조사는 자동차에 탑재된 ▲편의성 ▲최신 자동화 기술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인포테인먼트 및 커넥티비티 등 4가지 카테고리에 포함된 40개 기술에 대한 만족도를 1000점 척도로 묻는 고객 설문문을 통해 각 브랜드의 신기술 혁신 수준과 사용 편의성을 평가한다.

특히 TXI 조사는 J.D.파워의 주요 조사로 꼽히는 신차품질조사(IQS)와 상품성 만족도 조사의

보완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를 통틀어 최고 점수인 656점을 획득, 3년 연속 전체 브랜드 중 1위를 기록했다. 제네시스의 656점은 럭셔리 브랜드의 TXI 점수 평균인 588점보다 70점가량 상회하는 점수다.

현대차는 547점을 받아 일반 브랜드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일반 브랜드 평균 TXI 점수는 478점으로 현대차 역시 70점가량 상회하는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또 현대차는 전체 브랜드 순위에서도 제네시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해 세계 시장에서 높아진 위상을 입증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한편, 제네시스 GV80과 현대차 팰리세이드, 쏘나타는 TXI 중 일부인 '첨단 기술 어워드'(Advanced Technology Award)에서 최고의 기술을 적용한 차로 선정됐다. '첨단 기술 어워드'는 각 첨단 기술을 우수하게 적용한 차에 수상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중국 현지 생산 첫 전기차 '더 기아 EV5' 공개



'청두 국제 모터쇼' 참가...넓은 실내 야외활동 편의성 최적

기아의 준중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더 기아 EV5' (The Kia EV5·사진)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기아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에 위치한 중국서부국제박람회장에서 열린 '2023 청두 국제 모터쇼'에서 준중형 전동화 SUV 모델인 '더 기아 EV5'의 디자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EV5는 지난 3월 중국 상해 E-스포츠 문화센터에서 열린 '중국 기아 EV 데이'에서 선보인 '콘셉트 EV5'의 양산형 차량이다.

EV5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이며, 기아는 추후 국내 등 주요 시장 별 고객 니즈 및 판매 환경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성능과 상품성을 갖춘 EV5의 글로벌 모델을 각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EV5는 '오퍼ativ 뉴아이티드' (상반된 개념의 창

의적 융합)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 중 '자연과 조화되는 대담함'(Bold for Nature)을 기반으로 디자인돼 강인한 이미지와 미래지향적인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라고 기아는 설명했다.

우선 전면부는 수직으로 배열된 '스몰 큐브 프로젝트 LED 헤드램프'와 별자리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맵 LED 주간주행등'을 적용해 패밀리를 완성, LED 센터 포지셔닝 램프를 주간주행등과 연결해 보다 넓고 웅장한 느낌을 더했다.

측면 디자인은 역동적인 실루엣을 바탕으로 앞·뒤 펜더의 강한 형상과 함께, 그 사이 차체 면의 풍부하고 감성적인 면처리에서 느껴지는 극적인 대비감을 강조했다.

EV5의 실내에는 '자연과 인공의 경계 없는 조화'를 콘셉트로 디자인, 밀레니얼 가정의 특성을 고

려했다. 크래시패드에는 각각 12.3인치 클러스터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를 한데 묶은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으며, 대시보드 및 도어트림 상단부를 가로로 이은 '램어라운드 엠비언트 라이트'는 탑승객을 감싸는 듯한 인상을 줘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기아는 덧붙였다.

크래시패드 하단부에는 각종 쇼펍백이나 가방 등을 걸 수 있는 후크를 히든타입으로 적용,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다기능 센터콘솔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또 1열에는 벤츠 스타일의 시트를 적용해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새로운 실내 공간을 연출, 2열 시트에는 시트백 완전 평탄화(0도) 접이 기능을 적용해 차박 등 야외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차, EV멤버스 고객과 가을 캠핑

다음달 10일까지 참가 신청...캠핑용품 제공·차박 체험도

기아차 EV멤버스 고객을 대상으로 가을 캠핑 행사를 추진한다.

기아는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해어림 빌리지 캠핑장에서 전기차와 함께 하는 '기아 EV멤버스 캠프데이'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캠핑은 9월 ▲16-17일(토·일) ▲18-19일(월·화) ▲21-22일(목·금) ▲23-24일(토·일) 총 4회차로 진행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기아닷컴 및 기아멤버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마이기아

(MyKia)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기아는 참가자들이 자연 속에서 전기차 캠핑 라이프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행사에 기아 EV멤버스 회원 200명을 추첨, 당첨자 포함 최대 4명까지 참석이 가능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초청해 함께 캠핑에 참여할 수 있다.

기아는 캠핑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 참가 팀 별로 캠핑 텐트와 각종 캠핑용품, 밀키트 및 음료 등의 먹거리를 제공할 계

획이다. 또 참가자는 배정된 텐트 옆에 차량을 주차해 차박과 캠핑을 함께 체험할 수도 있다.

'전기차와 함께하는 캠핑 라이프'라는 콘셉트에 맞게 캠핑장 메인 광장에 EV9, EV6 GT 등 기아의 대표 전기차를 전시하며 캠핑장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포토존을 마련할 방침이다.

캠핑 참가자들은 차량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V2L(Vehicle to Load) 스페이스에서 소시지 그릴, 냉장고, 커피머신, 팝콘 제조기 등 다양한 전자제품을 사용해볼 수 있다.

캠핑장 분위기에 어울리는 숲속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목공예 체험, 별빛 시네마, 화로 불멍 등 참가자들이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